

# 청소년참여와 영국 시민교육

박선영\*

## 초 록

시민교육은 그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영국의 시민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청소년참여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시민교육의 목적이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 주제로 영국의 청소년 참여 현황, 참여 활성화의 배경이 된 영국의 공교육과정 내 시민교육이 도입된 사회적 배경 탐색, 2002년 이후 영국의 시민교육의 내용의 변화 과정 분석, 한국에서 청소년 대상의 시민교육과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제시하였다.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목은 1990년대 말 사회통합과 청소년문제의 해결, 청소년 참여 증진이라는 사회적 배경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공교육 과정에 포함되었으며, 이후 3번의 개편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은 5년마다 국가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청소년활동과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데 제6차 청소년정책은 자기주도적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영국의 시민교육의 주요 요소들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신역량 역시 시민교육의 주요 요소인 공동체의식과 공존, 협력과 연대 등의 사회적 가치이므로 시민교육은 청소년참여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연구 결과 및 제언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참여, 시민교육, 시민교육과정, 청소년정책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청소년의 청소년 관련 문제 및 정책수립 등에 대한 청소년의 필요성 인식 정도는 2011년 처음 조사가 실시된 이후 낮아지고 있는 반면, 참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2011년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

\*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부교수, sypark@knsu.ac.kr

으로 나타났다(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2017:51). 청소년이 참여한 활동은 크게 문화/예술 활동, 자원봉사활동, 직업/진로활동, 모험/개척 활동,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자기계발활동, 국제교류활동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중 사회 참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의 경우는 24.9%이고 국제교류 활동은 16.4%에 머물렀다(백혜정 외, 2018:29). 참여율이 낮은 것과는 별개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2014년보다 15.8% 증가하여 70% 정도가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백혜정 외, 2017:164). 비록 청소년의 참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진로나 발달에 관한 활동 참여 이외에도 지역사회와 연관된 활동에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즉 사회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의 참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역의 개발과 참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도 2014년 조사와 2017년 조사 모두에서 확인되었다(백혜정 외, 2017:165). 다만 위에서 제시한 참여활동의 종류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확인되어 향후 청소년 활동의 정확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의 종류와 영역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활동과 시민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알아볼 수 있는 후속연구도 필요하며 이는 청소년 참여활동과 시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단순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외에 ‘국제 시민성과 시민교육 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ies)’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2009년보다 2016년에 시민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시민적 참여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태준, 홍영란, 김미란, 김홍민, 2016). 구체적으로는 2009년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의 시민지식에 기반을 두어 적극적으로 사회적 참여활동에 임하는 경향성이 높아졌다. 2009년의 경우 지적 방관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 시민적 사회참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참여를 나타낸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제도적 발전과 생활 민주주의의 성숙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년들은 아시아에서 대만과 홍콩과 비교할 때 민주시민적 참여에 대한 낮은 가치 인식수준을 보였으며 사회활동에의 행동적인 참여 역시 낮은 수준을 나타내어(김태준 외, 2016). 2009년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변화는 있으나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시민적 참여에 대한 가치인식을 함양하게 하고, 이것이 실질적인 참여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요인에는 2010년 이후 한국의 다양한 정치 사회적 변화, 그리고 학교 안팎에서의 시민교육 중요성 대두 같은 것들이 중요한 변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원인분석도 필요하다.

청소년의 참여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중요한 화두이다. 2018년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15세에서 30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참여 실태 조사를 발표하였다(European Union, 2018). 이 조사에는 청소년의 다양한 종류의 사회참여활동, 예를 들어 스포츠나 문화 활동 관련 조직에의 참여정도, 혹은 각종 수준에서의 정치참여 실태, 국내외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도, 그리고 유럽연합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 조사 등이 포함되어있다(European Union, 2018:2). 이 조사의 주요 결과는 몇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조사대상 전 연령대의 절반 이상(53%)이 조직화된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한 개의 단체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절반이 넘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요한 결과는 다른 사회활동 참여보다도 정치참여율이 더 높았다는 것인데 이는 전체 응답자중 64%에 해당하였다. 또 지역이나 국가 수준에서의 정치 참여는 물론 유럽연합과 관련한 투표 참여율도 31%나 되었으며 이는 2014년과 비교하여 18%나 증가한 수치이다(European Union, 2018:2-6).

세 번째 주요한 결과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에의 증가이다. 31%의 응답자들이 지난 1년간 자원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역시 2014년 조사를 기준으로 6%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 중 69%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29%는 그들의 국가의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10%는 유럽연합의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European Union, 2018:2-6). 또 이들 중 28%는 그들의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관련 자격증이나 인증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4년과 비교하여 2% 증가한 8%의 청소년은 모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응답자중 14%의 청소년들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과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자원봉사활동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1%의 청소년들은 유럽회원국내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참여하였고, 8%의 청소년들은 그 외의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European Union, 2018:2-6). 유럽

연합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한국과는 매우 대조되는 것으로 자원봉사에의 동기와 목적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적용할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European Union, 2018:2-6).

네 번째, 실태조사의 주요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유럽연합의 청소년들이 교육과 기술,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고용률 증대, 사회복지와 사회통합 같은 것이 중요한 사회적 사안이라고 지적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의 청소년들은 비판적 사고능력의 증대, 유럽의 사안에 대한 바른 교육, 유럽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인식이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89%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유럽연합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유럽연합의 기능과 역사, 문화 등도 학교의 의무교육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83%나 되었다. 67%의 청소년들은 유럽연합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Erasmus+ 같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동의하였다(European Union, 2018:2-6).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가짜뉴스와 극단주의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능력의 강화를 중요하다고 보았다는 것이다(European Union, 2018:3-5).

이상의 한국과 유럽연합의 청소년참여 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참여활동의 내용과 목적이 국가와 지역별로 다르지만 곳곳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의 경우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정치 참여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조직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참여의 증가와 청소년의 시민으로서의 사회를 인식하는 정도, 다시 말해 유럽연합의 사회통합과 유럽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유럽연합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2000년대 이후 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하여 공교육이나 학교 밖의 비형식교육(특히 Youth Work이라는 형식을 통하여)을 통하여 강조해온 결과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자체별로 2016년 이후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기는 하였으나 유럽연합에 비해 시민교육에 대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탓에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와 시민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 결과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중 사회적 기여와 관련한 참여 정도가 유럽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은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심화, 폭력적인 극단주의 증가에 비해 평화와 공정,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존중, 관용, 차별 금지 같은 주요한

가치들의 훼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인지함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들이 무엇보다도 시민교육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적극적이고 교양 있으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European Commission, 2017:11). 특히 시민교육을 통해 함양하고자하는 사회적·시민적 역량(social and civic competences)은 2006년 유럽의회와 유럽평의회에 의해서 제시된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8개의 핵심 역량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럽연합은 2000년대 이후 학교교육을 통해서 공정을 확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적극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관련 청소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고 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7:19). 2015년에 발생한 파리와 코펜하겐에서의 테러는 유럽연합 회원국 내 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당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에는 유럽연합의 수준과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5). 이러한 시도는 시민교육을 통하여 유럽의 사회통합은 물론 청소년이 다원화된 유럽사회에서 책임감 있고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이 시민교육을 공교육 제도 안에서 사회과 교육으로 대치한다거나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 등에서의 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럽연합은 학교교육 안에서의 시민교육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청소년활동 같은 청소년 사업 영역(Youth Work)에서의 청소년 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듯 유럽연합은 시민교육이 반드시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들의 시민성 함양을 통하여 폭력적 극단주의를 예방하고 유럽의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European Commission, 2016).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경우 2010년 민주적 시민성과 인권교육 헌장을 발표한 이후, 이 헌장에 동의한 회원국의 실행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다양한 현장에서의 시민교육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과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차원, 그리고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의 시민교육에 대한 강조와 관심이 2017년 조사된 청소년의 높은 사회적·정치적 참여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전 방위적인 시민교육의 강조와 이에 대한 결과로 드러난 청소년 참여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과 실태를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국 시민교육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청소년 참여활성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즉, 시민교육의 어떤 내용과 방법이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를 증가시켰는가 하는 것을 도출하여 한국에서의 시민교육의 지향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 중에서 영국을 택한 이유는 현재 2019년을 기준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제외하고는 영국만이 시민교육 교과목을 단독으로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의무화하였기 때문이고, 다른 교과에서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의무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연구의 목적과 연구문제, 연구방법

이상의 연구의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영국 청소년 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둘째, 영국의 시민교육의 변화 과정과 청소년 참여 실태 관계 분석을 통해, 마지막으로 한국 청소년의 참여 및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영국 청소년의 참여 실태는 어떠한가?
- 청소년 참여활성화에 기여한 영국의 시민교육 교육과정의 변화와 내용은 무엇인가?

연구방법으로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공식 청소년 참여 실태 관련 보고서를 활용한 문헌연구이며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문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II.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 시민교육

### 1. 영국 청소년 참여 실태

2017년 기준 영국 청소년 15세~19세 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5.8%, 20세~24세 청소년 인구는 6.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uropean Commission, 2017:7). 한국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9~24세) 인구는 대한민국 총인구의 18%에(백혜정 외, 2017) 해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체 인구 중

아동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하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한국과 달리 영국의 아동 청소년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인 점은 다르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전역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각종 교육과 복지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물론 영국 역시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대상을 청소년으로 보았으며 청소년의 다양한 층위에서의 참여를 격려함으로써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시민교육의 주요 내용과 목적에 사회통합이 포함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다. 학교교육 이외의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시민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입시와 상급학교 진학위주의 한국 청소년대상 교육정책과 비교할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사회부(Office for Civil Society)는 2016년 청소년 사회참여 실태조사와 더불어 2013년부터 계속되어온 '#iwill' 캠페인을 통해 10세에서 20세의 청소년의 social action participation, 즉 사회적 행동 참여를 증가시켜 2020년까지 40%에 머물던 참여 수준을 60%까지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Pye & Michelmore, 2016:11-14). 이 캠페인에서 '사회적 행동 social action' 이란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다른 사람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과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을 돕는 광범위한 행동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펀드레이징, 캠페인 참여, 멘토링, 자선단체에의 시간 기부 등을 말한다(Pye & Michelmore, 2016:21).

이 캠페인은 모든 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양적인 참여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을 넘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행동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사회적 행동이 청소년과 수혜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을 지향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는 10세에서 20세 42%의 청소년이 의미 있는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반면 31%의 청소년은 어떤 형태의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하였다(Pye & Michelmore, 2016:15).

이러한 청소년의 의미 있는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1백만 파운드의 청소년 사회행동 기금(Youth Social Action Fund)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이 기금은 Pears Foundation과 UK Community Foundation이 매치펀딩을 통하여 처음 만들어졌으며 전국적인 차원에서 1백26천만 파운드가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위하여 사용되며 5천백만 파운드는 특별히 Norfolk, Suffolk, 그리고 Cambridgeshire의 청소년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고안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7:25). 영국

동쪽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영국 청소년의 개인의 발전이나 취미를 넘어서는 사회의 공익활동에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예산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청소년 참여 실태 중 의미 있는 결과는 첫째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다른 참여 실태. 조사 시점 기준 과거 1년간 사회적 활동에 참여한 것은 남성 청소년보다 여성청소년이 더 많았고 다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보다는 백인 청소년의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지역보다는 중소 소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2014년에 비해 2016년 36%에서 47%로 증가하였다(Pye & Michelmores, 2016:13).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배경의 청소년들의 참여가 31%에서 2016년 40%로 증가하였다. 긍정적인 결과 중 하나는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 출신의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참여율이 20%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2016년에는 9%로 줄어들었다(Pye & Michelmores, 2016:3).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청소년 참여 실태의 두 번째 특징은 Minority(소수자)라고 분류되는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중에서 의미 있다고 분류될 수 있는 사회적 참여의 수준은 여전히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사회적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논의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의 영국 청소년 참여의 특징은 청소년 참여의 3분의 1가량이 조직화된 단체 활동에의 참여라는 것이다. 에든버러 포상제(Duke of Edinburgh's Awards)나 국가 시민 서비스(National Citizen Servic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13%에 이르렀고 자선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곳을 통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9%정도였다(Pye & Michelmores, 2016:4).

또 청소년기관이나 시설에의 활동 참여도 17%에 이르는 등, 청소년이 관리되고 검증된 기관과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청소년 참여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긍정적인 단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곳에서의 활동의 종류는 연령대별로 다양한데 전기 청소년(10세~15세)일수록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에의 참여 비율이(23%) 중기청소년(16세~20세)의 참여율(11%)보다 높았다(Pye & Michelmores, 2016:3). 전기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 비율이 중기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영국의 중기



청소년들은 에든버러 포상제(Duke of Edinburgh's Awards)나 국가 시민 서비스(National Citizen Service) 같은 국가주도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초기 청소년들보다 3배 정도 높았다(20%)(Pye & Michelmore, 2016:3). 국가주도형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입시와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한국과는 다른 점이다. 조사결과의 또 다른 특징은 이렇게 청소년 기관의 조직된 프로그램이나 국가주도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수준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경제적 수준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이다.

네 번째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92%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웠고, 그들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했으며(74%), 활동에 참여하는 중에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75%)라고 응답하였다. 또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활동경험을 공유했고(27%),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참여할 활동을 찾았으며(24%), 열 명 중 두 명의 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활동 경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고 대답하였다(Pye & Michelmore, 2016:4). 영국에서의 청소년활동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점점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 되는 다양한 미디어와 매체가 주요 청소년 사회 참여의 홍보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34%의 청소년만이 청소년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49%의 청소년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17%의 청소년은 미래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Pye & Michelmore, 2016:5). 높은 참여율에 비해 미래의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로는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가 그 시기에 이루어지는 발달과업이나 학업의 일부로 여겨지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미비한 효과성 같은 것들도 청소년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영국 역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비롯한 다양한 참여의 효과성 측정 및 확산이 필요하다.

## 2. 청소년 참여와 시민교육

### 1) 시민교육의 배경과 내용

시민교육은 각 사회의 변화와 필요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시민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소련의 붕괴이후 국민을 결속하기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의 경제통합에서 사회통합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시민교육이 그 중요한 도구가 된 것이다. 영국은 자유주의의 만연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극대화 된 대신 책임과 의무가 소홀히 여겨지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민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7년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은 공동체주의에 토대를 둔 시민적 도덕성 시민적 도덕성(Civic Morality)과 시민 공화주의 사상(Civic Republicanism)을 기본으로 하며 시민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다(Crick, 2000;2002)

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청소년의 참여, 개인의 책임과 의무이행,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주의 이해 등을 담았다. 즉 영국의 시민교육이 시작된 계기는 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며 그 결과 청소년의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은 앞 장에서 이미 논의한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1990대 중반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진 청소년의 문제와 다문화주의의 심화, 사상 최저의 선거 참여율 등은 영국 사회에게 자유 민주주의 사상보다는 시민 공화주의 사상을 강조하며 청소년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강조한 것은 이전의 보수당 정부와는 매우 다른 입장이었다(Park, 2007).

노동당 정부는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7년 크릭(Crick) 교수를 중심으로 교육 기술부(DfES)안에 '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교육의 개념과 목적, 방향과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QCA, 1998). 이후 2019년 현재까지 3번의 시민교육의 개편이 있었는데 편의상 1주기 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는 첫 '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시민교육의 3대 주요 요소에는 사회·도덕적 책임감(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사회 참여(community involvement), 정치적 문해(political literacy)이 제시되어(DfES, 1998:40-41) 1주기 시민교육과정부터 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 문해라는 개념도 역시 사회참여를 그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정치문해란 단순히 정치적인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 사회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긍정적인 변화와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 때문이다(QCA, 1998). 그러므로 영국의 시민교육은 올바른 민주주의와 사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영국의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내 시민교육의 내용

아래의 표1은 2002년 이후 시민교육의 3대 요소의 변화를 담고 있다. 1주기 시민교육, 즉 2007년 개편 이전까지의 시민교육이 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하기는 하였지만 백인 중심의 영국 기득권 사회의 시민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다양한 비판이 있어왔다(Harber, 2000;2002). 앞 장에서 청소년의 참여 실태중 백인 청소년의 참여가 그렇지 않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참여가 높다는 결과가 이러한 비판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다문화 공동체를 더 강조하기 위해 2007년 2주기 개편에서 정체성과 다양성을 3번째 주요 요소로 변경하기도 하여 청소년 참여는 주요 목적이 아닌 세부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표 1〉 2002년~2013년 시민교육의 3대 요소

2002년	2007년 이후
개인적·도덕적 책무성	민주주의와 정의
사회참여	권리와 책임
정치문해	정체성과 다양성

2007년 개정되어 2013년까지의 시민교육의 3대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DfE, 2010). 첫째, 민주주의와 정의란 시민으로서의 정치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수준에서의 책임, 이러한 책임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에의 적극적 참여까지도 포함한다. 둘째, 권리와 책임은 개인적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보다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즉,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균형을 더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과 다양성은 사회통합을 위한 영국사회에 대한 이해, 다중정체성을 가지고 어울려 사는 법과 실천에 관한 부분이다. 2005년 런던테러 이후 백인위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 다문화사회에서의 책임과 권리를

배우고 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 3) 청소년 참여와 2주기 시민교육

2007년에서 2013년까지의 시민교육을 2주기 시민교육이라고 할 때 이 당시 청소년 참여와 관련된 시민교육의 당시 시민교육교과의 목적은 성공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책임감 있는 개인을 양성하는 것이다(QCDA,2010). 1주기에서처럼 사회참여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요소에서 행동과 실천, 참여를 강조하고 있어 오히려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더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시민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민주적인 지식과 태도, 기술을 가지고 공적인 생활과 민주적 제도 안에서 중요한 참여를 할 수 있기 위한 것이 시민교육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시민은 기초적인 문해와 수학능력의 함양뿐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사람, 독립적으로도 행동하지만 협력하여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지역사회와 세계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2주기 시민교육은 청소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개발하여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속의 복잡하지만 변화하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QCDA,2010). 즉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사회참여를 통해 다양한 층위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자신의 관점과 의견, 가치 또는 신념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민교육을 통한 학교나 지역사회와 관련된 활동에의 정기적인 참여는 청소년들이 실제의 복잡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자신감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시민교육을 통한 청소년 참여는 여러 관점에서 청소년의 개발과 발달에 기여하지만 특히 공동체적 정체성과 개인적 자신감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2주기 시민교육은 청소년이 다양한 종류의 개인과 지역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고 비록 자신이 동의하지 않을 지라도 비판적이고 창조적이며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QCDA,2010). 즉, 시민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의 삶의 긍정적 변화

를 위한 활동이나, 실제의 의사결정 활동, 정치나 제도의 변화를 위한 의사결정에서의 참여활동 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은 참여를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히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의 참여와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향후 청소년 참여와 시민교육에 대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세계의 자원, 지속가능개발, 정의와 공평, 인권, 국제사회의 분쟁의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세계의 상호연관성과 의존성을 배울 수 있으며 글로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QCDA, 2010). 글로벌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사회의 구성원(member)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시민교육을 마치 글로벌 리더에 대한 교육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 글로벌 시민교육은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와 참여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 4) 2013년 ~ 현재 교육과정상의 시민교육의 내용과 청소년 참여

현행 교육과정상 시민교육 교과목의 목적 역시 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민교육의 목적은 첫째, 영국의 정치제도 이해와 민주적 제도안에서의 참여를 위한 지식습득과 이해이다(DfE, 2013:1). 둘째는 법의 역할과 사법제도, 입법과정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하는 것이고(DfE, 2013:1). 세 번째 목적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가능할 수 있는 자원봉사는 혹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DfE, 2013:1). 마지막으로 시민교육의 목적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술을 기르고 미래의 재정적 필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매일의 삶속에서 화폐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DfE, 2013:1). 현행 3주기 시민교육의 마지막 목적으로 경제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것은 다소 의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주체로서의 시민의 권리와 역할,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시민교육의 목적 중, 세 번째 목적인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가능한 의미 있는 자원봉사활동과 그에 준하는 책임감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청소년참여를 위한, 혹은 시민교육으로서의 청소년 참여활성화에 대해 주는 시사점이 크다. 청소년 대상의 시민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 관점에서의 시민적 권리와 역할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행동하는 시민을 양성하

는 것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성교육과 달리 시민교육은 개인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 Ⅲ.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시민교육의 방향

#### 1. 현행 사회과 교과와 시민교육의 목적

한국의 국가교육과정에는 시민교육이라는 과목명은 없다. 다만 ICCS 국제 시민교육연구에 참여하는 한국은 사회과 교과목을 시민교육으로 간주하여 시민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Schulz, W., Ainley, J., Fraillon, J., Losito, B., Agrusti, G., & Friedman, T., 2017) 본 연구에서는 현행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분석을 통해 시민교육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8년 7월 고시된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대한 교육과정 설명에서

통합사회는 인간,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및 환경을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초 소양과 미래 사회의 대비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교육부, 2018:177)

라고 밝히고 있어, 통합사회과 교육은 사실 시민교육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전반에서 필요한 소양과 역량에 대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원본에서는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보면, 여기서의 다양한 활동이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일반화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국의 시민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지역사회와 공동체, 정치적 활동에의 참여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목표에서도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능력과 성찰하는 능력,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성찰과 설계에 대한 능력을 언급할 뿐 이러한 능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동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중학교 교육과정 역시 사회과 교과목이 시민교육으로 가늠할 수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

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교육부, 2018:63)

로 밝히고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보다는 목적 자체가 시민의 양성을 제시하는 시민교육으로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적시된 목표를 보면 사회와 여러 현상에 대한 이해, 다양한 수준에서의 다양성과 지역, 쟁점에 대한 관심, 각 시대의 특색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전통과 문화 특수성 이해, 민족사의 발전에 대한 이해, 인류에 대한 발달과 문화적 특색 파악,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 민주적 사회생활을 위한 문제 파악, 사회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능력 함양, 민주국가 발전과 세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 등(교육부, 2018:64-65)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강조하는 부분은 누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모두는 영국의 시민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지식과 이해,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가장 큰 차이는 시민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시민교육의 주요 목적이 민주사회에서의 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하고 청소년의 참여가 민주주의 제도의 지속가능성의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이해와 역량 함양정도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시민교육을 하고자하는 목적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공동의 목적과 발전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의 전환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국가청소년정책과 시민교육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매 5년마다 청소년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8년 시작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이후 줄곧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행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이라는 정책과제 중 세부과제로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을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전술한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국가청소년정책과 달리 공교육과정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엄정한 평가를 위하여 실천이나 참여 같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보다 가시적인 지식과 이해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내용이 지식 위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 점이 국가교육과정과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상호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국가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의 참여활성화를 강조하지만, 이를 위한 기본 지식과 이해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중요한 청소년의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단순한 청소년 활동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즉, 통합적인 시민교육을 위해서는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시민으로 필요한 지식과 이해 역량을 기르고 국가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시민성을 실천하고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강조할 수 있는 이원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는 융복합과 경계를 넘어서는 지식과 실천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시민성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미래 역량이기도 하다.

영국의 시민교육 교과과정은 현재까지 3번의 개편 중에 자원봉사활동 같은 청소년 활동을 주요 시민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을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참여나 권리 증진의 하위 영역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참여를 위한 궁극적 목적이자 방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교육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지식 위주이긴 하지만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활동분야에서는 여전히 정책과 개념으로서만 존재하고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교육의 목적이 실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청소년의 참여역량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고 청소년의 실제 참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참여 활동과 프로그램이 동시에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학교교육의 목적과 역할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기존 경제구조의 해체로 인해 상호의존성이 더욱 강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상호의존하고 공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615-617). 상호의존과 공존, 협력 등의 가치를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가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치들은 사실 시민교육의 중요 가치이자 원리이기도 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시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6대 핵심역량으로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자기 관리 역량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적어도 교육과 청소년과 관련된 중요 신역량 중의 하나는 공동체



와 공존, 협력 같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이 청소년시기의 공교육과정은 물론 청소년현장에서 다양한 시민적 참여, 시민교육을 통하여 체득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공교육과정, 즉 학교의 한계를 언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위에서의 청소년 참여를 전제로 하는 시민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청소년 현장에서도 개념과 정책으로서의 청소년 시민교육, 청소년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청소년참여와 권리증진,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와 청소년현장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 참여를 통한 시민교육, 청소년 참여를 위한 시민교육은 개인적 발달의 관점이 아닌 미래의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공동체적 과제이자 대안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정책 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 연구총서 2017-02.
- 교육부(2018a).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 교육부(2018a).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 김태준, 홍영란, 김미란, 김홍민(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V: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연구보고 18-R15-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8-57-0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여성가족부.
- Crick, B(2000). *Essays on citizenship*. London: Continuum.
- Crick, B(2002). *Democracy*.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 Department for Education(2010).The importance of teaching- The schools White Paper 2010. Department for Education.
- Department for Education(2013). **Citizenship programmes of study: key stages 3 and 4**.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Department for Education.
- European Commission(2017). **Youth Policies in the United Kingdom(England)**.
- European Union(2018). **European Youth**.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 Harber, C.(2000). *Models of citizenship education*. **Birmingham: Unpublished**

- handouts*, School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 Harber, C.(2002). 'Not quite the revolution: citizenship education in England',  
in: M. Schweisfurth, L. Davies & C. Harber (eds.) *Learning democracy  
and citizenship*. Oxford: Symposium Books.
- Park, S.Y. (2006). *The provision of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NGOs: Case  
studies from England and South Korea*. Ph.D thesis. Birmingham: The  
Univerisity of Birmingham.
-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QCA)(1998).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s: final report of the advisory  
group on citizenship (the Crick report)*. London: QCA.
-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Development Authority(QCDA) (2010).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s.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Development Authority(QCDA).
- Schulz, Wolfram; Ainley, John; Fraillon, Julian; Losito, Bruno; Agrusti, Gabriella;  
Friedman, Tim(2017). *Becoming Citizens in a Changing World*. IEA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2016 International  
Report. Springer.

## Abstract

# Youth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England

Sun Young Park\*

Citizenship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members of society who are needed for their nations and society. This study aims to promote youth work through analysis of citizenship education curriculum in England. It also started from the hypothesis that key features of citizenship education are overlapped with youth work.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sed the background of citizenship education in terms of social context and the national curriculum for citizenship studies in England since 2002, and tried to suggest the ways for promotion of youth work in Korean context. Citizenship education, in particular, has appeared to build inclusive society as well as to solve out the problems of young people in England. The citizenship education curriculum has been revised three times since 2002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society. In Korea, the government has to develop the national youth policy in every 5 years and the national youth work policy has contributed for the development of youth work field. However youth work activities tend to decline in comparison of youth welfare and youth protection. Fortunately, the 6<sup>th</sup> National Youth Policy included youth-led participation and youth activities, these are similar to citizenship education curriculum in England. Further the new competences for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era are overlapped with the key features for citizenship education such as mutual respect, cooperation, community involvement. Therefore this study argues that the components of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Youth Guidance and Sport Educatio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sypark@knsu.ac.kr](mailto:sypark@knsu.ac.kr)

한국청소년활동연구 제5권 제4호(통권 제11호)

citizenship education can be used for the youth work activities and as a method for youth work in Korea.

**Keyword** : Youth participation, citizenship education, citizenship curriculum, youth policy

투고일 : 2019. 03. 05. 심사일 : 2019. 12. 20. 게재확정일 : 2019. 12. 26.